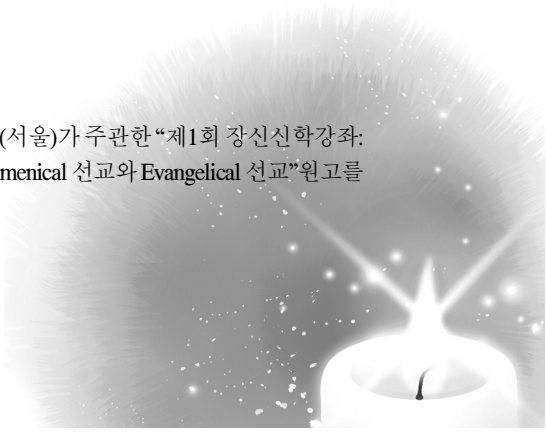
Ecumenical 선교와 Evangelical 선교: 그 공통점과 차이점 -로잔세계복음화운동을 중심으로*

김 성 욱

총신대학교 교수

목 차

1. 서론 | 258
2. 한국교회와 로잔선교운동 | 261
3. 로잔 선교 운동의 배경 | 263
4. 복음주의 선교운동과 베를린 국제복음화 대회 | 267
5. 제1차 로잔(Lausanne) 세계복음화대회(1974) | 271
6. 제2차 로잔(Lausanne) 세계복음화대회(1989) | 279
7. 제3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2010) | 283
8. 결론 | 285



* 본 논문은 2016년 5월 12일, 장로회신학대학교(서울)가 주관한 "제1회 장신신학강좌: 한국교회와 장신신학의 정체성"에 발제한 "Ecumenical 선교와 Evangelical 선교"원고를 수정한 것입니다.

1. 서론

한국교회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의 입국과 선교활동이후 13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지금 세계선교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다. 1910년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선교대회에 한국교회 대표로 참가한 사무엘 모펫(Samuel Moffett)선교사와 윤치호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사무엘 모펫은 거기에서 한국이 동북아지역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처럼 강대국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동북아에서 영적인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사무엘 모펫 선교사의 예견대로 한국교회는 전세계를 상대로 선교하는 선교국가로 섬기고 있다.

그리고 최초의 장로교선교사로 입국한 언더우드선교사가 사역할 때, 미진한 조선의 선교 상황에서 "주여! 조선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드린 기도문이 얼마 전에 한국교회에 소개된 적도 있지만,[1]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선교사역에서 선교중심적인 교회로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면초가에 직면한 절박한 형국이지만, 그 가운데 세계 교회 앞에 한국교회가 공헌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한국교회의 선교이다. 사실 한국교회는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고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찾아가고 있지만, 신학교육기관에서 선교학은 아직도 그렇게 신학교육의 관심있는 주제의 학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회의 선교적 발전과 도약은 지난 198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눈부시게 확장하였다.[2] 이러한 발전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선교중심적

1) 이것은 2010년 언더우드의 후손중에 한 분이 한국을 방문 중에 그 일기나 기도문은 실제로 그들의 조상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후일에 양화진에 관한 한국선교역사주제를 다룬 글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하였다.

인 헌신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선교역사에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교회성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서구 교회의 선교열의 감소와 맞물려 한국교회의 선교적 속성을 찾았을 때에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신학적 정체성이 선교의 지속가능성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서구 유럽교회가 세계선교 사역을 이끌었던 소위 "위대한 [선교]세기"(The Great Century, 19세기)의 선교를 이끌어 갈 때도 보수적인 선교신학이 선교적 열정과 헌신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의 선교사역도 성경중심의 보수적인 선교학을 기초로 21세기 현재에도 한국교회의 선교사역은 확장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외형적 통계에서 나타난 한국교회의 선교사역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에서의 선교마인드는 교회에서나 신학교에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Wilbert R. Shenk도 지난 미국교회 선교역사에서 선교신학은 신학교육의 현장에서 아직도 주변학문으로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신학교 교육과정에서 온전한 위치를 갖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하였다.[3] 한국신학교육에서 선교신학은 소위 6대신학 (구약, 신약, 조직, 역사, 실천, 선교)의 한 분야로 편성되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선교신학의 구성은 그렇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총신대 신대원의 커리큐럼상에 나타난 선교신학 필수과목은 선교학원론, 선교역사, 선교와 문화 등 3과목에 불과하며, 나머지 선교학 과목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모 신학대학은 선교학을 전공한 전임교수를 임용하지 않고 있는 점도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교계에서의 선교에 대한 관심역시 세계선교사역에서 선두적인 한국선교의 통계에 비해서 그렇게 선교적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없다. 현재 합동측

2)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 1980년에 100명, 1990년 1000명, 2000년 10.000명, 그리고 2010년에는 20,000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선교협의회(KWMA)의 보고(2015년 1월 8일 총회)에 의하면 현재는 26677명이 17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3) Wilbert R. Shenk, "North American Evangelical Mission since 1945: A Bibliographic Survey," In *Earthen Vessels: American Evangelicals and Foreign Missions, 1880-1980*, eds. Joel A. Carpenter and Wilbert R. Shenk, (Grand Rapids: Eerdmans, 1990), 319.

선교 통계에서 나타난 선교사 파송수를 비교해 보면 245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전체 교회의 10%에 불과하며, 나머지 90%는 전임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통계이다.

오늘의 한국교회에서 활발한 선교사역을 위해서 개혁신학적 선교신학의 정립은 더욱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선교학 교재나 선교역사 자료들이 주로 초교파적인 선교사들에 의해 저술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장로교 신학의 개혁신학적인 선교학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16세기 장로교신학의 지도자 존 칼빈은 선교에 대해 별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기 까지 하는 실정이다. 칼빈이 예정론을 강조하니까 장로교신학에는 선교적 노력이나 활동이 전문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종교개혁 당시에 장로교회는 카톨릭교회의 방해속에서 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하여 개혁교회는 미신적인 중세교회를 다시 초대교회와 같은 선교적인 교회로 회복시키고, 성도들의 선교적인 사역을 장로와 집사제도를 통해서 확립하였으며, 칼빈이 목회하던 제네바교회는 실제로 남미 브라질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존 칼빈의 개혁신학의 전통을 물려받은 장로교신학의 선교신학은 이미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통해서 분명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실천하였다. 그리고 화란 개혁파 교회와 선교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으며, 지금도 개혁주의 선교학자들의 선교교제로, J. H. Bavinck, Harvie M. Conn, Charles Van Engen 등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실제로 한 세기 동안 세계선교계를 이끌었던 선교지도자들이 로잔운동을 중심으로 빌리 그래함(Billy Graham)과 존 스토트(John Stott), 그리고 랄프 윈터(Ralph Winter), 폴 히버트(Paul G. Hiebert), 등 모두가 개혁주의 교회 출신이 아니라 초교파적인 배경을 지닌 분들이다. 현재 미국을 중심한 선교학을 연구하는 신학대학으로 풀러신학대학원, 트리니티신학대학원, 리폼드신

학대학원, 사우스웨스턴신학대학원, 에즈베리신학대학원 등이다.

오늘의 현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추구하고 연구하는 자리에서 선교신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로잔 세계복음화 운동(Lausanne Movement for World Evangelization)을 중심으로 그 동안에 일어난 다양한 역사적인 선교대회를 살피고, 로잔복음화운동의 역사적인 의의와 그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교회와 로잔선교운동

21세기는 한국교회의 세계선교적 역할과 사명을 확실히 요구하는 시기이다.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 130여 년 만에 한국교회는 교회성장과 함께 세계선교에 활발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제3차 로잔 대회 의장인 덕 버셀(Douglas Birdsall)은 지난 근세사 300년 동안 곧 1700년부터 2000년까지, 가장 아름다운 두 교회로, 진젠돌프(Zinzendorf)가 중심이 된 모라비안 교회와 한국교회를 지명하였는데, 이 두 교회의 특징은 규모에 비해 선교중심적인 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평한 바 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세계선교를 섬기는 사역을 보다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교회의 선교신학과 선교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역과 특징을 살피려면,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이루어진 세계선교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 교회 선교동향은 먼저 다양한 선교대회와 선교신학의 활동을 통해 고찰할 수 있다고 본다. 20세기 한 세기는 다음 중요한 다섯 가지 선교대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1910년의 에딘버러 선교대회, 그리고 1921년 국제 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창설과,

1948년 설립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 그리고 1974년 제1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 1989년 제2차 로잔대회, 마지막으로 2010년 남아공에서 개최된 제3차 로잔대회라고 볼 수 있다. 아더 존스톤(Arthur Johnston)은 20세기 선교운동의 약진의 원인으로 로잔선교운동을 지목하였는데, 로잔선교운동은 현대 교회로 하여금 초대교회와 같은 활발한 선교적 열정으로 돌아가게 하였다고 평가하였다.[4] 그러므로 로잔선교운동은 모든 교회가 전 세계에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모인 만국교회의 세계선교운동이다.[5] 조종남 박사는 로잔운동이야말로 "성경적 선교를 믿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계획하며 일할 수 있는 우산의 역할을 하며, 로잔은 세계교회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로잔운동을 잘 소개하였다.[6] 그리고 방선기 목사도 "한국교회에서 로잔정신이 꽃피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성경적 운동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7]

특별히 지난 2010년은 그 어느 해보다 현대 한국교회 역사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많은 선교대회가 준비되었고 진행되었다. 지난 100년 전에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열렸던 세계선교대회를 기념하는 국제선교대회가 동경[8]과 에딘버러[9], 그리고 서울[10]에서 개최되었으며, 국제로잔운동협회는 이것을

---

4) Arthur Johnston, *The Battle for World Evangelism*, (Wheaton: Tyndale House, 1989), 24.

5) Mats Tunehag, Wayne, Josie Plummer, 『Business As Missions』, (해리 김외 1인 역),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10), 5.

6) 조종남, "로잔의 역사와 신학," 「목회와 신학」, 1989, 10월호, 46.

7) 방선기, "한국교회와 로잔운동, 로잔정신," 「목회와 신학」, 1989, 10월호, 105.

8) 동경대회의 주제와 장소 그리고 일시는 다음과 같다: 대회 타이틀은 From Edinburgh 1910 to Tokyo 2010 Global Mission Consultation & Celebration이며, 대회 주제는 "우리 세대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자"(Making Disciples of Every People in Our Generation)이었다. 전 선교단체 대표들과 일본 성도들이 참여한 선교축제로서, 시간과 장소는 2010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토쿄 나가노 선플라자(Nakano Sun Plaza, Tokyo)에서 개최되었다.

9) 에딘버러에서 열린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는 안타깝게도 300여 명의 적은 수가 참여한

기념하여 남아공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제3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백 년 전에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선교 사역이 수행되었다면, 21세기는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선교의 사역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새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으로 20세기는 어느 때보다 현대교회가 선교에 집중한 세기였다고 본다. 이러한 현대 선교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로잔 세계복음화대회를 중심으로 나타난 복음주의선교운동의 역사와 배경은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로잔 선교 운동의 배경

로잔 세계복음화운동(Lausanne Movement for World Evangelization)은 현대 세계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로잔운동이 오늘의 성경적인 선교적 확장이 가능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세기 전반기를 중심으로 나타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서구교회의 선교의 감소가 진행될 때에, 로잔선교대회는 다시 성경중심적인 선교신학을 강조하여 지속적인 정통적인 선교운동이 가능하게 만든 역사적 중요한 선교운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로잔 세계복음화운동이 나타나기까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선교대회로 과거 100전의 선교대회와는 달리 선교적 열정과 열심이 잘 드러나지 않는 대회였다.

10) 서울대회는 그 주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Witness Jesus Christ Today!)이며, 대회 타이틀은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 100주년 기념 2010한국대회이며, 한국연합선교회가 중심이 되어 100개의 주제논문 발표와 지역(인천, 부산) 선교대회를 개최하였다.

사실 현대 선교사역에서 지난 19세기의 선교적인 열기와 부흥은 20세기의 놀라운 선교시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10년 영국에서 열렸던 에딘버러 선교대회는 "이 세대안에 세계복음화"(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는 대회주제 하에 새로운 세기의 선교의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전세계교회가 함께 모여 선교를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결의를 통해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IMC)를 결성하는 결과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21년 미국 뉴욕주의 모홍크 호수(Lake Mohonk)에서 국제선교협의회(IMC)의 창립 총회를 가지며 선교를 위한 전세계적인 협력과 선교신학의 발전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 국제선교협의회는 2차 예루살렘 선교대회(1928),[11] 3차 마드라스 대회(1938),[12] 4차 캐나다의 휘트비 대회(1947),[13] 그리고 5차 빌링겐 대회(1952),[14]

---

11) 제2차 국제선교협의회는 세계 50개국 231명의 대표들이(한국대표: 김활란여사) 1928년 부활절 예루살렘의 감람산위에서 개최하였으며, "기독교 메시지의 성격과 세속화(Secularism)에 대한 기독교 전략"이란 주제로 모였으며, John R, Mott는 여기서 타종교 안에서도 좋은 점들을 발견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국제선교협의회가 사회복음(Social Gospel) 및 혼합주의(Syncretism)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비판받게 되었다. 이 대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전통적인 영혼구원의 선교는 "낡은 복음전도"라고 비평하고 영혼구원의 선교를 거부한 점이었다.

12) 제3차 국제선교협의회는 인도의 마드라스(Madras, 현재 첸나이), 탐바람(Tambaram)에서 1938년 12월2) 세계 69개국으로부터 471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교회야말로 복음화를 수행하는 최상의 기구이며,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였다. 문제점으로는 1930년대 등장한 칼 바르트의 위기신학의 영향으로 기독교복음은 타종교의 완성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까지 된 점이다.

13) 제4차 국제선교협의회는 1947년 7월 캐나다 온타리오, 휘트비(Whitby)에서 40개국 112명의 대표들 참석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한 세계교회의 연합의식 재확인하는 대회였다. 그리고 선교국과 피선교국간의 구별을 지양하고, 복음전파에 있어서 동역자의 자세를 역설하였다. 그리고 Student Volunteer Movement의 표어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복음이 세계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14) 제5차 국제선교협의회는 1952년 7월 5-17일까지 독일 빌링엔(Willingen)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은 181명으로, 이 가운데 과반수가 제3세계의 대표들이었다. 여기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 연합의 필요성 재확인하고, 선교국과 피선교국간의 동역의

그리고 6차 가나 대회(1958)[15]로 이어지면서 열렸다. 그 후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선교분과와 합쳐져서 선교를 위한 세계교회의 연합과 협력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선교를 위한 전세계 교회들의 협력과 연합은 커다란 가시적인 선교의 열매를 가져왔지만,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세계선교는 수많은 세속적인 신학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지난 20세기는 눈부신 선교의 발전을 가져온 시기이지만 아울러 선교를 위한 신학적인 투쟁이 처절한 시기였다. 특히 윌리엄 혹킹(William Ernest Hocking)은 "선교의 재고"(Re-Thinking Missions)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선교의 목적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바, 말과 행위로 표현되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사랑을 추구하는 데 있다."[16] 그리고 "비기독교적 종교체제를 공격하는 것이 기독교 선교사의 의무는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종교체제 안에 義를 실현시키고 있는 세력들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간주해야 한다."[17]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종교다원주의적인 발상으로, "중국의 유교는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인도의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일본의 신도는 신도 나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성 재강조하였다. 선교는 교회중심적인 관점에서 선교사들의 활동에 국한시키지 않고, 역사와 세속 세계안에 주권적으로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활동(Missio Dei)에 참여하는 모든 일을 선교의 활동으로 보았다.

15) 제6차 국제선교협의회 총회는 아프리카 가나, 아키모타(Achimota)에서 1957년 12월 28일에서 1958년 1월 8일까지 개최되었다. "기독교선교란 무엇인가?"라는 대표적인 질문아래 선교지와 선교국 교회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결의한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1948년에 창설된 WCC와 통합할 것을 결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신학교육기금(Theological Education Fund)의 설립을 결의한 것이다. 이 기금은 미국의 록펠러(John D. Rockefeller) 재단을 중심으로 2백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미의 신학교육을 촉진케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참고: 김은수, 『현대선교의 흐름』,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10), 148.

16) William E. Hocking, *Re-thinking Missions, A Layman's Inquiry after One Hundred Year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32), 59.

17) William E. Hocking, *Re-thinking Missions*, 59.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선교신학의 주장은 그 당시 북미 교회의 선교후원금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1973년 태국 방콕에서 "오늘의 구원"이란 주제로 모인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세계선교위원회(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CWME)에서 선교에서 구원의 개념이 변질되어 신학적 혼돈을 가져왔으며, 마침내 방콕대회는 서구 선교사들의 모라토리움(Moratorium), 곧 해외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보낼 필요도 없으며, 현재의 선교사도 철수하라고 제창하기에 이르렀다.[18]

그리고 WCC 제5차 나이로비 총회(Nairobi Assembly of WCC 1975)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마르크스주의의 해방신학에 깊은 영향을 받고 "현대판 바로의 권력으로부터 피압박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Nairobi의 선교론으로 나타나고, 구원의 신학을 해방의 신학으로, 그리고 선교를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으로 전락시켰다. 스티븐 니일(Stephen Neill)은 이러한 세계교회협의회의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해방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며, 만일 우리가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배신하는 것이다."[19] 이러한 WCC의 선교신학은 복음전파와 사회활동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교회의 주요 관심이 세계복음화보다 사회활동에 치우치게 만들고, 교회의 주된 선교가 인권운동과 정치적 경제적 해방운동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현대의 에큐메니칼은 성경적 개념의 선교에서 벗어나 있다고 본다. 에드먼드 클라우니(Edmund P. Clowney)는 "정치적 행동으로는 교회가 사회를 구원할 수 없다. 만일 복음전도가 정치화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The Church cannot redeem society by political action, when evangelism become politics; it is no longer the Gospel of Christ's

18) 조종남,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운동의 역사와 신학』, (서울: 선교횃불, 2013). 25.
19) Steven Neill, "The Nature of Salvation," *The Churchman*, Vol., 89, No., 3, 1975, 230.

Kingdom)."[20]

이러한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된 자유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 사회복음주의, 그리고 상대주의적인 세속적인 사상들 때문에,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적인 선교를 위한 세계선교사역을 위하여 베를린 선교대회(1966), 제1차 로잔 세계선교대회(1974), 제2차 로잔 세계선교대회(1989)를 통하여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선교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수적인 교회들의 연합을 가져온 그 배경은 바로 진보적인 선교신학의 자극으로 인해, 성경중심적인 개혁주의 교회와 보수적인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 세계선교를 위한 협력을 이어갔다. 그리고 2010년에 남아공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로잔 세계선교대회는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의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되었다.

4. 복음주의 선교운동과 베를린 국제복음화 대회

4.1. 복음주의 교회와 선교(Evangelical Churches and Mission)

1960년 후켄다이크(J. C. Hoekendijk)의 하나님 선교신학이 에큐메니칼의 전반적인 선교신학으로 자리 잡자, 개인영혼구원을 전제한 복음화를 최우선적 과제로 삼은 전통적인 선교관이 인간화와 샬롬을 강조하는 새로운 선교로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게 됨으로, 보수진영은 복음주의(Evangelism)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연대를 모색하게 되었다.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 때부터 문제의식은 가졌으나, 실제로 1961년 국제선교협의회(IMC)와 세계교회협

20) Edmund P. Clowney, "A Critique of the 'Political Gospel'", *Christianity Today*, Vol. 11 (1967, April, 28th), 11.

의회(WCC)가 통합되면서 에큐메니칼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직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에 대해 아서 존스톤(Arthur Johnston)은 "19세기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인 선교운동은 이 대회를 기점으로 종언을 고하게 되었으며, 경건주의 개척자들의 영향 아래 전진했던 위대한 선교의 세기는 선교정치와 기관들의 출현으로 종말을 맞게 되었다"[21]고 비판하였다.

그래서 1917년, 에딘버러 선교대회 이후 주류 교단의 자유주의적 성향과 초교파선교단체의 영향력이 상실되자 복음주의자들은 초교파해외선교협의회(Interdenominational Foreign Mission Association: IFMA)를 창설하였다. 일부 근본주의자들은 미국복음주의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NAE)를 결성하였으며, 그 후 1945년 선교단체와 연합으로 복음주의해외선교협의회(The Evangelical Foreign Missions Association: EFMA)를 결성하였는데, 그것은 IFMA가 초교파선교단체만을 허입하였기 때문에 교파선교단체를 포함하는 연합체로서 EFMA가 결성되었던 것이다. 신설된 EFMA는 새로운 학생사역과 교파단체의 보호막이 되었다. 1945년부터 1974년까지 복음주의 선교는 인적, 조직적, 재정적으로 성장하였다. 1976년부터 이 두 단체는 3년마다 연합모임을 갖기로 결의하였다.[22]

최형근은 복음주의 선교의 도약을 위한 중한 기폭제는 다음에 나타난 여러 단체의 출현으로 가능하였다고 한다:[23] 곧 풀러신학교의 창설(1947), 빌리 그래함의 전도협회(BGEA) 창립, Christianity Today 창간(1956). 빌리 그래함의 복음주의운동, 세계복음주의협회(WEF, 지금은 WEA) 설립(1952), 그리고 IFMA와 EFMA 연합으로 EMQ 창간(1964)한 일과 도날드 맥가브란이

21) Carl F. Henry and Stanley Mooneyham, eds., *One Race, One Gospel, One Task* , Vol. I,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s, 1967), 6.

22) Ralph Winter, "It is Possible? Global Cross-Cultural Mission Collaboration: 1910-2010," *Mission Frontiers*, Jan-Feb. 2009, 9.

23) 최형근, "로잔운동의 역사, 신학, 비전," 개혁주의선교신학, 2012년, 제3권, 43-44.

풀러선교대학원 개원(1965)한 일들이 주요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기폭제로 열거되었다.

선교를 위한 전세계교회의 협력과 연합은 큰 가시적인 선교의 열매를 가져왔지만,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세계선교는 수많은 세속적인 신학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었다. 독일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 사회복음주의, 그리고 상대주의적인 세속적인 사상들로 인해 선교신학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적인 선교를 위한 세계선교사역을 위하여 휘튼(Wheaton)과 베를린(Berlin) 선교대회(1966), 제1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Lausanne Congress on the World Evangelization I, 1974), 제2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1989), 그리고 제3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2010)를 통하여 전통적이고 총체적 복음주의적 선교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수적인 교회들의 연합을 가져온 그 배경은 바로 진보적인 선교신학의 자극으로 인해, 성경중심적인 복음주의 교회와 보수적인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 세계선교를 위한 협력이었다.[24]

4.2. 베를린(Berlin) 세계복음화대회

1966년 가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복음화대회"(The World Congress of Evangelism)는 현대 기독교 역사상 매우 의미있는 복음화대회로서, 이러한 선교대회는 Billy Graham의 지도력에 의하여 소집되었다. 대회의 주제는 "한 인류, 한 복음, 한 임무"(One Race, One Gospel, One Task)로 100여 개국 1,200명 이상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복음전도를 연구하게 되었다. 본 대회의 지도자들은 빌리 그래함과 Christianity Today의 편집장인 칼 F. 헨리(Carl F. Henry)가 중심적으로 활동하였으며,[25] 이 대회에는 다양한 그룹

24)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wide Co., 1975); J. D. Douglas, ed.,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Minneapolis: Worldwide Co., 1990).

의 참가자들, 특히 제3세계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특히 에쿠아도르에서 참여한 아우카(Auca) 인디언들은 1956년 5명의 선교사들이 순교당한 지역에서 회심한 사랑과 평화의 사신들이었다.

본 대회가 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빌리 그래함은 영혼 구원을 반대하는 WCC의 에큐메니칼의 선교론에 반대하면서, 전통적인 성경적 선교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를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힌다. "복음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여 사람들로 그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여 교회의 교제 속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다"(To evangelize is so to present Christ Jesus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at men shall come to put their trust in God through him, to accept him as their Savior and serve him as their King in the fellowship of his Church).[26] 또한 성경적인 선교의 동기가 모호해진 시대적 상황에서 분명한 성경적 선교동기의 정립이 필요해서, 베를린 복음화대회가 열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27] 베를린 복음화대회는 거의 3년간의 준비와 계획을 통해 열리게 되었다. 성경적인 복음화에 대한 바른 정립과 교회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의 문제들, 민족주의나 인구문제와 경제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한 협력구조에 대해 논의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베를린대회 이후에 보다 체계적으로 복음주의선교대회가 로잔선교대회로 나타나게 되었다.

---

25) Arthur Johnston, *The Battle for World Evangelism*, (Chicago: Tyndale, 1978), 157.

26) Carl F. Henry and Stanley Mooneyham, eds., *One Race, One Gospel, One Task*, Vol. I,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s, 1967), 25.

27) Carl F. Henry and Stanley Mooneyham, eds., *One Race, One Gospel, One Task*, 26.

5. 제1차 로잔(Lausanne) 세계복음화대회(1974)

제1차 로잔세계복음화대회(Lausanne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은 스위스의 로잔에서 1974년 7월 16일 - 25일 사이에 열린 "세계복음화대회"로. 그 규모면에서나 중요성에 있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 전세계 150여 개국에서 참가한 2,700여 명이 모여서 "온 땅이여, 그의 음성을 들으라!"(Let the Earth Hear His Voice!)라는 주제로 성경적 복음선포를 주제로 대회를 이끌었다. 이는 1973년 방콕 WCC의 선교분과위원회의 서방선교의 모라토리움, 곧 해외선교를 보낼 필요도 없고 현재의 선교사도 철수하라고 주장하는 급진적인 선교론에 대한 철저한 복음주의적 선교론을 정립하는 대회였다.[28]

그들은 신학적 혼란의 시기에 복음전도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선포하고 이것을 표준으로 선교의 메시지와 방법들을 검토하여 성경의 진리를 그리스도인들이 도처에서 당면한 중대한 문제들에 관련시키는 것을 주장했다. 불신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원에로 회복하는 데는 성경이 가장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성경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한 인격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언제나 악한 세력들 안에서 변질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끊임없이 갱신할 수 있게 한다.

존 스토트(John Stott)는 복음전도와 사회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사회활동은 복음전도의 한 협력자(a partner of evangelism)임을 주장하고 이 둘은 서로에게 속하는 존재로 규명했다. "각각은 다른 쪽의 자신의 발로 자신의 권리 안에 선다. 다른 쪽에 대한 한 방편은 아니며 더욱이 다른 쪽의 한 표현도 아니다. 왜냐하면 각각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둘 모두

28) 조종남,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운동의 역사와 신학』, (서울: 선교횃불, 2013). 25.

거짓 없는 사랑의 표현들이다."[29]

로잔 세계복음화선교대회(I)는 "전적으로 철저하게 복음주의적인" 선교대회를 위한 계획으로 소집되었다. 빌리 그래함(Billy Graham)은 이 대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의 복음주의적 입장에 전적으로 헌신한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주의적이거나 논쟁적인 입장을 취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30] 이 모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복음주의에 헌신적이어야 하며,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서에 충실하고, 복음전도와 구원과 회심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힌다.[31]

그리고 로잔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제회의(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에서 15개 조항의 로잔언약을 발표하였다. 이 대회는 기본적으로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방향에 대항하여 복음주의 선교를 분명하게 선언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1974년 제1차 로잔 대회를 개최함으로 시작된 로잔운동은 성경의 권위와 함께 인간의 원죄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헌신을 강조하는 복음전파의 목적을 위해서 교파들의 폭넓은 연합을 시도하였던 빌리 그래함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이 회의의 놀라운 결과는 150개국에서 모인 2,430명의 지지를 받은 로잔언약(Lausanne Covenant)이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www.lausanne.org서 찾을 수 있다.

에큐메니칼 진영이 1968년 웁살라대회에서 선교의 목표 자체를 "복음화"에서 "인간화"로 바꾸고, 1973년 방콕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세계

---

29) John Stott,"The Lausanne Covenant,"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s, 1975), 23.

30) 1972년 3월 23일과 24일 미국 Florida의 Vero Beach에서 열린 회의에서 빌리 그래함은 전세계의 복음화에 대한 장애와 전략에 대해서 이처럼 발표했다. "차기의 복음전도 대회에서는 '모든 각각의 참가자가 전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복음주의적이어야 한다.'" Arthur Johnston, *The Battle for World Evangelism*, Chap. 7.

31) Arthur Johnston, *The Battle for World Evangelism*, Chap. 7.

선교위원회(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CWME)에서 선교의 핵심내용인 구원의 개념 자체를 "영혼구원"에서 "오늘의 구원"(Salvation Today) 개념으로 바꾸자, 복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선교신학을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것이 1974년 로잔대회로 나타나게 되었다.[32] 1974년 로잔 선교대회를 정점으로 세계선교의 구심점이 복음주의 쪽으로 이동하였다. 로잔운동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위원회가 창설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로잔운동은 2개의 주요 로잔모임과 50여 국가와 지역모임을 감독하였다.[33]

그리고 로잔운동은 지난 시간 동안에 대양한 신학주제들을 정하고 연구모임을 주관하였다: 곧 지금까지 다루었던 주제들은 "동질단위원리"(Homogeneous Unit Principle)(1977), "복음과 문화"(Willowbank Consultation, 1978), "무슬림 복음화"(1978), "단순한 생활양식"(Consultation on Simple Lifestyle, 1980),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Consultation on Relationship between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1982), "기도"(1984), "신앙과 현대성"(1993), "상황화"(1997), "명목주의"(1998), "영적 전쟁"(2000) 등이다.

그리고 1980년 태국 파타야 로잔대회는 650명의 대표단이 17개 소 협의회를 구성하여 세계복음화에 관한 신학적, 전략적 이슈를 연구하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을 복음화 할 뿐만 아니라 미전도종족들, 곧 주변인, 소수민족, 종교인, 도시인에 대한 선교전략을 논의하였다.[34] 특별히 1974년 제1차 로잔 세계복음

32) 조종남,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운동의 역사와 신학』, (서울: 선교횃불, 2013). 25.

33) 그 모임들은 다음과 같다: 세계복음화중국협의회(CCOWE; 1976, 1981, 1986, 1991, 1996); 유대인복음화국제대회(ICJE; 1983, 1986, 1991, 1995, 1999); 복음전도를 위한 아시아로잔대회(ALCOE; 1978, 1988, 1992); 복음전도를 위한 라틴아메리카대회(LACE; 1969, 1982); 국제연구원(IRC; 1987, 1996); 1975부터 1980년까지 5냔 동안: 국가집회 케냐(1975), 나이지리아(1975), 인도(1977), 가나(1977), 노르웨이(1978)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1978), 베네수엘라(1979), 독일(1980), 과테말라(1980).

34) Scott Moreau, "1910년부터 2010년까지의 복음주의 선교," 『선교의 에큐메니즘 회고와 전망』,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편, (서울: Mission Academy, 2009), 264.

화대회에서 강조된 주요 내용을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한다.

5.1.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선교적 책임을 갖는다

각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의 복음화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복음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행자"(The Church as God's Agent in Evangelism)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35] 하워드 스나이더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수단인 이유에 대해서, 교회는 복음전파를 위해서 유일하게 신적으로 지명된 하나님의 수단이며, 하나님은 선교를 위한 교회 이외의 다른 기관은 갖지 않으신다고 주장하였다.[36] 특히 로잔선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의 중심에 있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정하신 수단이다"(The church is at the center of God's cosmic purpose and is his appointed means of spreading the Gospel) 라고 명시하였다.[37] 하워드 스나이더는 교회와 선교단체와의 차이점을 들면서 교회가 가지는 선교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교회의 특징과 선교회의 특징을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작품이라면, 선교회는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 모인 모임일 뿐이며, 교회가 영원한 신적 기관이라면, 선교단체는 선교사역을 위한 일시적인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구분하였다.[38]

---

35) Howard A. Snyder, "The Church as God's Agent in Evangelism,"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s, 1975), 327.

36) Howard A. Snyder, "The Church as God's Agent in Evangelism," 327.

37)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s, 1975), 5.

38) Howard A. Snyder, "The Church as God's Agent in Evangelism," 339: The Church is God's creation, spiritual fact, cross-culturally valid, biblically understood and evaluated, validity determined by the spiritual qualities and fidelity to Scriptures, God's agent of evangelism and reconciliation, essential, eternal, divine revelation, and purpose to glorify God; The

5.2. 효율적인 선교사역을 위해서 성경의 권위는 강조되어야 한다

방콕대회의 선교의 모라토리움선언으로 교회의 선교사역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선교를 폐지하도록 만든 것과 달리, 로잔대회는 복음선교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전적무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특별한 계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39] "그렇게 죄로 소경된 사람들이 그의 뜻과 역사 그리고 이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역사에 대한 방법들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은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사전달이 한 필연성이 되었다(딤후3:17)"고 주장하였다.[40]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로잔선교대회에 참석한 김의환박사는 이 대회에서, 성경의 고유한 권위를 강조하는 벨기에 신앙고백(the Belgic Confession)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대한 복음주의적 견해와 로마 가톨릭,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등의 견해들 간의 차이점들을 발표했다[41]: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을 그리고 이것들만을 우리 신앙의 규정과 기초(foundation)와 확인(confirmation)을 위하여 거룩하고 정경적인(canonical) 것으로서 받아들인다. 그것들에 포함된 모든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것은 교회가 그것들을 그러한 것으로서

Para-Church is man's creation, sociological fact, culturally bound, sociologically understood and evaluated, validity determined by function in relation to mission of the Church, man's agents for evangelism and service, expendable, temporal and temporary, human tradition, and purpose to serve to the Church.

39) Susumu Uda, "Biblical Authority and Evangelism,"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84: "Since man has sinned, he has become a willing slave of sin and thereby totally incapable spiritually."

40) Susumu Uda, "Biblical Authority and Evangelism,"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84

41) Eui Whan Kim, "The Authority of the Bible and the Lordship of Christ,"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985-991.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기보다는 더욱 특별하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들은 그 자체에 있어서 증거를 하기 때문이다."[42]

김의환박사는 성경의 영감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초대교회 교부들, 로마의 클레멘트, 순교자 져스틴(Justin Martyr), 그리고 이레니우스(Irenaeus) 등의 일치된 견해였다고 주장하고, 성경의 영감교리는 성경의 무오성(Inerrancy)과 무결함성(Infallibility)의 교리임을 강조했다: "무오성은 영감의 교리에서 나오는 당연한 추론이다. 영감은 성경의 오류들과 양립할 수 없다. 원초적인 자필(autographs)의 성경의 말씀들이 성령으로 영감된 바로 그 말씀들이라면, 그것들은 필연적으로 오류가 없어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역사적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오늘날 현재까지 모든 시대에 있어서 주장된 성경에 대한 태도이다."[43]

또한, 김의환박사는 성경의 무오성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교리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는 어떤 복음주의 진영의 학자들의 경향에 대해서 경계해야 함을 역설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복음주의자들로부터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그래서 새로운 신학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 풍조를 듣기 시작하고 있다. 아마도 현대의 정통에 대한 이러한 불만의 근본적 이유는 학구적인 공동체 안에서 정통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얻으려는 어떤 복음주의적 학자들의 소망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44]

캐네스 칸져(Kenneth Kantzer)박사는 이러한 김의환박사의 주장에 대하여 격려의 기쁜 어조로 성경의 무오성을 세계 복음화의 계속적인 축복과 관련을

---

42) Eui Whan Kim, "The Authority of the Bible and the Lordship of Christ,"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988.

43) Eui Whan Kim, "The Authority of the Bible and the Lordship of Christ,"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989.

44) Eui Whan Kim, "The Authority of the Bible and the Lordship of Christ,"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989.

시켰다: "세계 복음화의 임무는 세계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구한다. 어떤 개인이나 한 집단의 경험들은 우주적 복음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도리어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마 24:14). 우리가 전파해야 할 것은 개인적인 의견들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다(딤후 4:2). 그러한 증거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사 55:11), 그는 그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45]

5.3. 선교사역은 복음전도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다

로잔대회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선교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점이다. 로잔대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존 스토트(John Stott)는 성경적인 복음화라는 주제의 글에서, 선교란 복음전도와 봉사를 둘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했다.[46] 요 20:21에 나타난 선교사명은 복음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을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종의 신분으로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임을 강조했다: "최상의 속죄하는 희생의 예수의 사명(Mission)은 봉사생활의 최고점이었다. . . 그의 사역처럼 우리의 선교(Mission)는 봉사의 그것이 되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빌 2:7).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야 한다. 그는 우리에게 봉사의 완전한 모범을 제시하시며 그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종된 교회(a servant church)가 되도록 보내신다."[47]

---

45) Kenneth S. Kantzer, "Authority and Uniqueness of Scripture Report,"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993.

46) John R. W. Stott, "The Biblical Basis of Evangelism,"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65-78.

47) John R. W. Stott, "The Biblical Basis of Evangelism,"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5.4. 효율적인 선교전략으로서 미전도종족에 대한 선교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로잔대회에서 강조한 네 번째 주제로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종족들에 선교적 관심을 집중하도록 방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랄프 윈터(Ralph Winter)는 E-1지역의 복음화(언어, 풍습, 문화 등 여건이 같은 지역 복음화), E-2지역의 복음화(언어, 풍습, 문화 등 모든 여건이 비슷한 복음화), 그리고 E-3지역의 복음화(언어, 풍습, 문화 등 모든 여건이 전혀 다른 지역 복음화)를 주장하였다.[48] 곧 제1차 로잔대회는 미전도종족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각 언어나 문화를 연구하는 선교전략을 개발하는데 강조점을 두었다.

5.5. 선교는 교회성장에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로잔대회에서 특히 강조한 것으로 선교는 교회성장을 포함한다고 강조하였다.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박사는 선교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일도 포함하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한 구주로 선포하고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의 제자들과 책임 있는 교회의 교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49] 피터 바이어하우스(Peter Beyerhaus)는 "복음전도의 목표는 개개의 신자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전도의

His Voice, 67: "But this supreme atoning sacrifice was the climax of a life of service. ..... He gave himself in selfless service for others. Now he tells us that as the Father sent him into the world, so he sends us. Our mission, like his, is to be one of service. He emptied himself of status and took the form of a servant (Phil.2:7). So must we. He supplies us with the perfect model of service and sends his church into the world to be a servant church."

48) Ralph Winter, "The Highest Priority: Cross-Cultural Evangelism,"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215.

49) Donald McGavran, "The Dimensions of World Evangelization,"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109.

목표는 이 신자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메시아적 공동체인 교회의 책임 있는 교인들로 가입되도록 하는 것이다."(The goal of evangelism is not only to make individual believers. The goal of evangelism is to persuade these believers to be incorporated as responsible members into the church as God's Messianic community).[50]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우선 세계 여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하여 선교사역이 유지되고 계속되게 하는 모든 사역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6. 제2차 로잔(Lausanne) 세계복음화대회(1989)

제1차 로잔대회가 열린 후 15년 뒤인 1989년 7월 10일에서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약 170개국 3,000여 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필리핀 마닐라에 모여 2차 로잔세계복음화대회(Lausanne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를 가졌다. 이 대회의 결과로 나온 마닐라 선언문은 21개 항목의 신앙고백과 "전교회"(Whole Church), "온전한 복음"(Whole Gospel), "온 세상"(Whole World)에 대한 선언문을 담고 있다. 제2차 로잔 복음화대회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주를 선포하자: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모든 복음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에게"(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Calling the Whole Church to take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라는 주제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논문발표와 모임을 가졌다. 이 대회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제1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확대시키기 위한 모임이었는데, 이 모임의 특징은 제3세계 교회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

50) Peter Beyerhaus, "World Evangelization and the Kingdom of God,"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288.

제2차 로잔대회에서 작성된 마닐라선언(Manila Manifesto)은 복음전도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다짐한 선언이다: “하나님은 전세계에 전체적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전체 교회를 부르시고 계신다. 모든 크리스천 공동체 회원들은 그들이 처한 주위의 사회에서 복음전파와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51] 그리고 전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협력하고 지도할 것을 다짐하였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의 증인으로서 그들의 위치를 바르게, 자연스럽게 감당하도록 격려한다. 참된 전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말하는 것이다.”[52]

제2차 로잔 대회는 크게 3가지 주제들로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의 선교적 책임”으로, 둘째는 “모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곧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선교사역을 펼쳐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셋째로는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내용으로 미전도종족을 포함한 선교지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조동진박사는 로잔언약과 마닐라 선언(Manila Manifesto)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이 두 문헌은 기독교의 기초를 풀어 가르치는 교재와도 같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해설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처럼 성경 전반의 요절들을 인용하면서 만들어진 전도 지침서와도 같은 문서”라고 평가하였다.[53] 제2차 마닐라선언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

51) J. D. Douglas, ed.,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s, 1990), 27: “God is calling the whole church to take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 . We affirm that every Christian congregation must turn itself outward to its local community in evangelistic witness and compassionate service.”

52) J. D. Douglas, ed.,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32.

53) 조동진,『세계선교트랜드 1900-2000 下』, (서울: 아시아선교연구소, 2007), 412.

6.1.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복음선포(The Whole Church)

제1부에서 다룬 모든 교회(The Whole Church)는 지역교회와 복음화의 사명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대표 이종윤 목사를[54]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교회의 선교사역을 논하면서 교회 내의 평신도의 선교적인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피터 하먼드(Pete Hammond)는 현대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평신도의 사역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99퍼센트의 평신도의 선교사역에 불참은 세계복음화를 불가능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평신도의 불참은 비성경적인 차별대우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평신도는 현대사회에서 불신자들을 그들의 직업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평신도선교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55]

6.2. 모든 복음을 전파하라(The Whole Gospel)

제2부는 성경에 나타난 복음선포에 대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 부분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죄와 상실(Sin and Lostness), 그리고 타문화권 복음전도와 타종교의 도전들,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복음화의 협력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부분은 주로 로마서에 나타난 세상의 죄악과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인과 죄, 성령의 충만한 생활, 그리고 종말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삶에

54) 한국대표로 참서하여 발제한 이종윤 목사의 발표주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중요성" (The Primacy of the Local Church in the World Evangelization)이었다. 참고: J. D. Douglas, ed.,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69-72.

55) Pete Hammond, "The Laity," in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J.D. Douglas, ed. 81.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6.3.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The Whole World)

세 번째 부분은 복음화의 대상으로 도시선교, 현대화의 영향력,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과 선교, 미디어선교의 중요성, 그리고 선교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외에도 각 분과마다 제2차 로잔대회는 다양한 425개의 워크-샵을 열어서 각 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다양한 주장들을 발표하게 하였다. 그 워크-샵의 중심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A.D. 2000운동, 연구방법과 복음, 타문화권 선교, 제이-제삼 세계선교, 평신도의 사명, 텐트메이커, 여성과 복음사역,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청년 리더십, 기도, 신학과 복음화, 복음화에 나타나는 성령, 지역교회, 사회적 책임과 교회, 미전도종족, 도시선교, 무슬림선교, 가난한 자들 선교, 민족복음화, 새신자 양육, 성경번역과 배포,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복음화의 모델, 정보공유, 건강과 치유, 대학복음화와 대학생, 복음과 문화, 현대화의 문제, 영적 전쟁, 복음을 위한 단순한 삶, 중국인의 복음화, 불교도들의 복음화, 힌두교도들의 복음화, 유대인들의 복음화, 현대 명목상의 신자 문제, 미전도 도시들, 어린이 전도, 가족전도, 이주민 선교, 스포츠 선교, 세계인구와 거주지 문제, 신학교육자들 등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제2차 로잔대회의 여러 분과에서 발표한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이 대회가 세계복음화의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폭넓게 토의하고 발표한 선교대회였던 것을 볼 수 있다.

7. 제3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2010)

제3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Lausanne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는 2010년 10월 16일에서 25일까지, 198 개국 4,200여명의 선교지도자들이 남아공 케이프 타운(Cape Town)에서 열렸다. 특히 이 3차 대회는 특별히 지난 100년 전에 열렸던 에딘버러 세계복음화대회(1910)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지고 개최되었다. 제3차 로잔세계복음화대회의 표어는: "세상과 자기를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이 로잔대회의 정신은 겸손과 회개의 정신이었으며, 3차 로잔대회는 다원적이고 깨어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다.

본 대회는 로잔언약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2차 마닐라 대회에서 채택된 로잔운동의 정신인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한다(The Whole Church Brings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는 핵심주제를 분명히 하는 대회였다. 곧 여기서 "온전한 교회"(The Whole Church), "온 복음"(The Whole Gospel), "온 세상"(The Whole World)은 성경적 선교관으로 받으며, 이러한 로잔언약에 근거하여 제3차 2010 케이프 타운 로잔대회는 이 세 가지 주제의 축을 근거로 하여 오늘날 세계복음화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었다. 먼저 온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깨어진 세계에서 화해의 복음을 다루고, 온 세상은 타종교와 타문화, 그리고 지속적인 과제와 선교전략을 다루고, 온 교회는 교회의 순결함과 청렴함, 그리고 교회의 협력과 일치의 문제들을 다루었다.

제3차 로잔대회의 주요 자료들이 최근에 한국어로 자세하게 번역되어 "케이프 타운 서약(The Capetown Committment): 믿음과 행동에의 요청에 대한 선언"은 서서히 한국교회에 소개되었다.[56] 케이프 타운 서약의 전문은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가르침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증거하는 과제에 지속적으로 헌신한다. ..... 둘째, 우리는 로잔운동의 핵심 전문인 로잔언약(1974)과 마닐라선언(1989)에 지속적으로 헌신한다."[57]라고 3차 로잔대회 역시 앞의 두 대회와 성격을 같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증거에 철저한 헌신을 주장한다.

3차 로잔대회 참석자들이 만나서 참관 후기를 기록한 자료, "제3차 로잔대회 후기: 케이프타운 2010 톺아보기"[58] 에서, 1974년 1차 대회의 중심 리더인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존 스토트(John Stott), 사무엘 에스코바(Samuel Escorbar), 르네 빠띠야(C. Rene Padilla) 대신에, 2010년에 열린 제3차 로잔대회는 국제로잔운동 의장인 더글라스 버셀(Douglas Birdsall)과 린지 브라운(Lindsay Brown, IFES 국제복음주의학생회 출신 지도자),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후 2013년부터 국제로잔선교운동 총재직이 한국계 미국인 마이클 오(Michael Oh, 한국명: 오영석)선교사로 넘어 오면서,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한 기대와 활동에 대해

---

56) Lausanne Movement, *The Capetown Committment*, 『케이프타운 서약: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복음주의 헌장』, (최형근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4). 케이프 타운 서약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케이프타운 서약 The Capetown Committment 믿음과 행동에의 요청에 대한 선언: 전문(Preamble)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신자들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구원의 목적들에 기꺼이 우리의 헌신을 다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로잔운동의 비전과 목표들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다시금 확인한다. 제1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서약 1.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사랑한다. 2.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3.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4. 우리는 아들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5.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 6.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7.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한다. 8.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한다. 9.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 10.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한다.

57) Lausanne Movement, *The Capetown Committment*, 13.

58) 황병구, "제3차 로잔대회 후기: 케이프 타운 2010 톺아보기", 「복음과 상황」, 2010년 10월호, 124-133.

세계교회가 주목하게 되었다. 마이클 오선교사는 하버드대에서 석사(동아시아학)와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석사(과학), 박사(교육 및 인류학) 학위를 받았고, 시카고 트리니티 복음주의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였다. 일본 나고야 그리스도성서신학교(Christ Bible Seminary in Nagoya)의 설립 학장인 그는 2004년 태국 파타야포럼 때부터 로잔운동에 참여하였고, 지금은 국제로잔운동 총재로 활발한 선교활동을 이끌고 있다.

8. 결론

지금까지 로잔세계복음화운동(Lausanne Movement for World Evangelization)을 통해서 일어난 현대교회 선교신학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다. 로잔세계복음화운동은 현대교회로 하여금 선교흐름의 격랑기중에서 성경적 복음화 운동을 회복시키고 지속적으로 활발한 선교사역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참으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빌리 그래함(Billy Graham)과 존 스토트(John Stott)를 중심으로 복음주의 선교지도자들이 이되어, 1966년 휘튼(Wheaton)과 베를린(Berlin) 복음화대회와 1974년 제1차 로잔세계복음화 대회,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Manila)에서 열린 제2차 로잔세계복음화대회(1989), 그리고 2010년 가을에 제3차 로잔(Lausanne) 세계선교대회가 남아공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개최되면서, 지난 19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의 100주년을 기념하였다.

지난 19세기의 예일대 K. S. 라투렛 교수의 “위대한 선교의 세기”(The Great Century) 이어서, 21세기 위대한 교회성장의 세기로 이어오면서, 1910년의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1910년)의 의미와 이후 100년 동안, 국제선교협의회(IMC)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에 대해, 성경중

심적인 복음주의적(Evangelical) 교회들이 로잔선교운동을 통하여 성경적 선교, 영혼구원과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주의 선교신학을 발전케 함으로 21세기 세계선교를 위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은수, 『현대선교의 흐름』,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10.

방선기, "한국교회와 로잔운동, 로잔정신," 「목회와 신학」, 1989, 10월호, 100-105.

조종남, "로잔의 역사와 신학," 「목회와 신학」, 1989, 10월호, 32-46.

조종남,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운동의 역사와 신학』, 서울: 선교횃불, 2013.

조동진, 『세계선교트렌드 1900-2000』, 서울: 아시아선교연구소, 2009.

최형근, "로잔운동의 역사, 신학, 비전," 「개혁주의선교신학」, 제3권, 1집, 2012: 39-60.

황병구, "제3차 로잔대회 후기: 케이프 타운 2010 톺아보기", 「복음과 상황」, 2010년 10월호, 124-133.

Beyerhaus, Peter, "World Evangelization and the Kingdom of God."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wide Co., 1975.

Clowney, Edmund P. "A Critique of the 'Political Gospel'." *Christianity Today*, Vol. 11, 1967, April, 28th, 11.

Douglas, J. D.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wide Co., 1975.

Douglas, J. D. ed.,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Minneapolis: Worldwide Co., 1990.

Hocking, William E. *Re-thinking Missions, A Layman's Inquiry after One Hundred Year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32.

Hammond, Pete "The Laity," in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J. D. Douglas, ed.. Minneapolis: Worldwide Co., 1990.

Henry, Carl F. and Stanley Mooneyham, eds., *One Race, One Gospel, One Task*, Vol. I,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s, 1967.

Johnston, Arthur, *The Battle for World Evangelism*, Chicago: Tyndale, 1978.

Kantzer, Kenneth S. “Authority and Uniqueness of Scripture Report.”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wide Co., 1990.

Kim, Eui Whan, “The Authority of the Bible and the Lordship of Christ.”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wide Co., 1990, 985-991.

Lausanne Movement, *The Cape Town Commitment*, 『케이프 타운 서약』, (최형근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4.

Lee, Jong Yun, “The Primacy of the Local Church in the World Evangelization,” J. D. Douglas, ed.,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Minneapolis: Worldwide Co., 1990. 69-72.

McGavran, Donald, “The Dimensions of World Evangelization.”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wide Co., 1990, 109.

Moreau, Scott, “1910년부터 2010년까지의 복음주의 선교.” 『선교의 에큐메니즘 회고와 전망』,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편, 서울: Mission Academy, 2009.

Neill, Steven, “The Nature of Salvation.” *The Churchman*, Vol., 89, No., 3, 1975,

Shenk, Wilbert R., “North American Evangelical Mission since 1945: A Bibliographic Survey.” In *Earthen Vessels: American Evangelicals and Foreign Missions,* 1880-1980, eds. Joel A. Carpenter and Wilbert R. Shenk, Grand Rapids: Eerdmans, 1990.

Snyder, Howard A. “The Church as God’s Agent in Evangelism.”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s, 1975.

Stott, John R. W., “The Lausanne Covenant.”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s, 1975.

Stott, John R. W., “The Biblical Basis of Evangelism.”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wide Co., 1990, 65-78.

Tunehag, Mats, Wayne, Josie Plummer, 『Business As Missions』, (해리 김 외 1인 공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Uda, Susumu, “Biblical Authority and Evangelism.”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wide Co., 1990, 84.

Winter, Ralph, “The Highest Priority: Cross-Cultural Evangelism.”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wide Co., 1990.

Winter, Ralph, “It is Possible? Global Cross-Cultural Mission Collaboration: 1910-2010.” *Mission Frontiers,* Jan-Feb. 2009, 9.